**Colorful Travel Scenario**

**키워드: 색, 화가, 사계절, 물리적 성질**

**연출 참조**

* **각 계절에 해당하는 스테이지 진입 시 스크립트 창에 3가지 악장 중 1개를 랜덤으로 띄운다.**
* **스테이지의 오브를 획득 후 특정 위치에 가면 희미한 형체가 앞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.**
* **게임 중간 중간 특정 스팟에 도달할 경우 지정된 스크립트가 출력된다.**

**시나리오 컨셉**

* **색맹이 되어버린 화가가 잃어버린 색을 되찾는 스토리**
* **각 계절(스테이지) 마다 해당 계절과 관련된 색에 대한 이야기(추억)가 있음.**
* **시간의 순서: 겨울 🡪 가을 🡪 여름 🡪 봄**
  + **색을 되찾다 🡪 회상하다 🡪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🡪 역순**
* **색 오브를 먹으면 그 색에 해당하는 추억이 떠오르면서 해당 색을 인지할 수 있음.**
* **각각의 색에 해당하는 성질과 관련된 이야기?**
* **척박한 세상에 잃어버린 자신(자아)을 되찾는 이야기**
  + **척박한 세상 🡪 회색, 되찾은 자아 🡪 모든 색**

**플레이어가 색을 바꾸는 것 🡪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**

**플레이어 캐릭터**

* **달동네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(미술 학원 선생님) 🡪 어릴 땐 화가를 꿈꿨다.**
* **시간이 지나면서 정형화된 미술을 하게 되고 점점 척박한 현실에 치이며 점점 자아를 잃어버리고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된다. (색을 잃어버림)**
* **게임(꿈?)을 진행하면서 색을 찾고 자아를 찾아간다.**
* **겨울(30대) 🡪 가을(20대) 🡪 여름(10대) 🡪 봄(유치원생)으로 갈수록 어릴 적 기억(순수한)을 떠올린다.**
* **어릴 때는 순수하게 미술을 좋아했으나 나이가 들며 점점 일(입시 미술)을 위한 미술을 하게 되어 미술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 버린다.**

**색**

**해당 색의 오브 획득 시 출력되는 스크립트**

**흰색**

**깃털같이 가벼운 눈이 내렸다. 하얗게 뒤덮인 세상을 느낄 새도 없이 사람들은 하얀 입김을 불며 제 갈 길을 가기 바빴다. 눈처럼 순수한 어릴 적 나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.**

**검은색**

**밤새 나의 등을 따뜻하게 해준 연탄은 제 수명을 다하고 얼어붙은 도로 위에 뿌려졌다. 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아스팔트 위의 눈은 검게 물들어갔다.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깜깜하리만치 기억나지 않았다.**

**노란색**

**은행나무들이 가득한 길에 산책을 나갔다.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떨어졌다. 발길을 멈추고 바라본 떨어진 은행잎들이 나의 어릴 적 꿈처럼 느껴졌다.**

**빨간색**

**여름날의 캠핑장에서 모닥불의 따뜻함에 이끌려 다가갔지만 이내 뜨거움에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. 어릴 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미술이 다가갈수록 뜨거운 모닥불 같았다.**

**파란색**

**모래사장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. 지구와 달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자 바다도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되었다. 미술에 대한 내 열정도 바다처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.**

**초록색**

**식목일에 심어둔 여러 꽃들의 새싹이 땅 위로 튀어 올랐다. 꽃이 다 피고 나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인다고 한다. 그 때부터 였을까 7살의 내가 여러가지 색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것이.**

**게임 시나리오**

**‘여긴 어디지..?’**

**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고 내 손엔 커다란 붓이 쥐어져있었다.**

**어딘지도 모른채 발자국을 남기며 길을 따라 걷던 중 바닥의 흔적들을 발견했다.**

**‘이 흔적들은 뭐지?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건가?’**

**흔적들을 따라간 곳에 수상하게 생긴 빛나는 두 개의 구가 있었다.**

**빛나는 구들은 나를 홀린듯이 끌어당겼고 아무 생각없이 손을 갖다댔다.**

**(하얀색 오브와 검은색 오브 획득)**

**현실에 치여 전전긍긍 살아가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다.**

**주변의 둘러보니 그제서야 눈으로 덮인 겨울이 눈에 들어왔다.**

**눈 덮인 거리 위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.**

**‘저 흔적을 따라가면 또 다른 기억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?’**

**다른 기억들을 찾기 위한 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.**

**비발디 사계 소네트**

**봄**

**제1악장. 따뜻한 봄이 왔다.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.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소란을 피운다. 어느 덧 구름은 걷히고 다시 아늑한 봄의 분위기 속에 노래가 시작된다.**

**제2악장. 파란 목장에는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목동들이 졸고있다. 한가하고 나른한 풍경이다.**

**제3악장. 아름다운 물의 요정이 나타나 양치기가 부르는 피리소리에 맞춰 해맑은 봄 하늘 아래에서 즐겁게 춤춘다.**

**여름**

**제1악장.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 타는 듯 뜨거운 태양아래 사람도 양도 모두 지쳐버린다. 느닷없이 북풍이 휘몰아치고 둘레는 불안에 휩싸인다.**

**제2악장. 요란한 더위에 겁을 먹은 양치기들은 어쩔 줄 모르며 시원한 옷을 입으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.**

**제3악장.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무서운 번갯불. 그 뒤를 우레 소리가 따르면 우박이 쏟아진다. 잘 익어가는 곡식이 회초리를 맞은 듯 쓰러진다.**

**가을**

**제1악장.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술과 춤 잔치를 벌인다.**

**제2악장. 노래와 춤이 끝난 뒤 시원한 가을밤이 찾아 들어 마을 사람은 느긋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.**

**제3악장. 이윽고 동이 트면 사냥꾼들이 엽총과 뿔피리를 들고 개를 거느린 채 사냥을 떠나 짐승을 뒤쫓는다.**

**겨울**

**제1악장.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겨울. 산과 들은 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잡아 흔든다. 이빨이 딱딱 부딪칠 정도로 추위가 극심하며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시원한 음식을 먹는다.**

**제2악장. 그러나 집안의 난롯가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.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다.**

**제3악장. 꽁꽁 얼어붙은 길을 조심스레 걸어간다.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간다. 바람이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소리를 듣는다. 이것이 겨울이다. 그렇지만 겨울은 기쁨을 실어다 준다.**

**계절**

**봄**

**- 따뜻한 봄이 왔다.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.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소란을 피운다. 어느 덧 구름은 걷히고 다시 아늑한 봄의 분위기 속에 노래가 시작된다. (비발디 사계 – 봄 1악장의 소네트)**

**- 청춘의 ‘춘’이 봄 춘 한자. 겨울이 가고 봄날이 왔다는 것은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날을 시작한다는 비유  고난 끝에 찾아온 좋은 시절을 비유. 반대로 봄에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많음.**

**여름**

**-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 타는 듯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도 양도 모두 지쳐버린다. 느닷없이 북풍이 휘몰아치고 둘레는 불안에 휩싸인다. (비발디 사계 – 여름 1악장의 소네트)**

**- 더움, 장마, 태풍, 잊지 못할 추억의 배경 (방학이나 휴가로 인한 야외 활동에서 비롯된 추억)**

**가을**

**-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술과 춤 잔치를 벌인다. (비발디 사계 - 가을 1악장의 소네트)**

**- 수확의 계절, 추석, 단풍, 천고마비의 계절, 고독의 계절, 단풍놀이, 가을을 탄다 (가을에 쓸쓸함이나 울적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)**

**겨울**

**-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겨울. 산과 들은 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잡아 흔든다. 이빨이 딱딱 부딪칠 정도로 추위가 극심하며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시원한 음식을 먹는다. (비발디 사계 – 겨울 1악장의 소네트)**

**- 추움, 겨울나기(의식주 모두 무리), 크리스마스, 새해, 눈, 건조함**